

# 전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1호선권

지방 출판유통의 현장을 간다 ① 인천·부천 지역

인천에서 부천을 잇는 국철 1호선권 출판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40여 서점이 문을 닫았고, 부평·부천 역시 다를 것이 없다. 이 지역에서 적자생존의 법칙을 뛰어넘는 경쟁이 빚어진 것은 서울과 상권이 혼재된 가운데 할인매장 및 도서대여점의 등장으로 정가제가 파괴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인천에서 현대적 의미의 서점이 설립된 것은 해방 이후. 원류는 지금은 인천의 대표 서점으로 성장한 대한서림(대표 김순배)과 '배다리' 지역의 몇몇 고서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배다리에 위치한 한미서점 장경환 대표는 "항도의 특성 때문에 외서가 많이 들어와 고서점이 번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가격파괴 열풍에 휩싸인 서점들

60~7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서점 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자체적인 도매상과 총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고, 국철 1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상권이 통합되면서 지역 서점의 위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한서림 김준배 대표는 "서울의 대형서점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고 밝혔다. 현재 3백여 서점과 24곳의 총판 및 단행본 도매상 1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갈수록 어려운 입장이다. 한때 40여 곳에 이르던 '배다리' 지역의 고서점도 대부분 현책방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상권이 협소한 부평과 부천 지역은 더욱 고달픈 처지다. 1백여곳에 이르는 부평 지역의 서점 가운데 98년 20여곳이 문을 닫았으며, 부천 역시 3년 동안 35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은 9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가격파괴 열풍. 전문할인점과 상설할인매장, 그리고 대여점의 등장으로 출혈경쟁을 감내해야 했다. 부평 한겨레문고 정화영 대표는 "정가제 파괴로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IMF사태가 겹치면서 도매상이 타격을 입었고, 서점 또한 속속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가격파괴 열풍이 전국에서도 가장 거세게 불어 95년 3월 급기야 '도서정가제 철회'까지 외친 부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인문고 이상훈 대표는 "매출이 45% 가까이 줄고 마진 폭도 떨어져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백한다.

지역 서점이 어려움을 겪는 또다른 원인으로 직거래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서점의 70% 이상과 소형서점의 30% 가량이 직거래를 하지만 물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까닭으로 구색맞추기조차 어렵다. 최근에 등장한 위협 요소는 서울 대형서점의 진출.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를 마친 이들이 등장할 경우 경쟁력 없는 지역 서점은 초도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 서점은 들푼과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대형서점과 경쟁할 수는 없는 처지"라는 우려다.

## 올바른 유통체계 강렬히 기대

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도 분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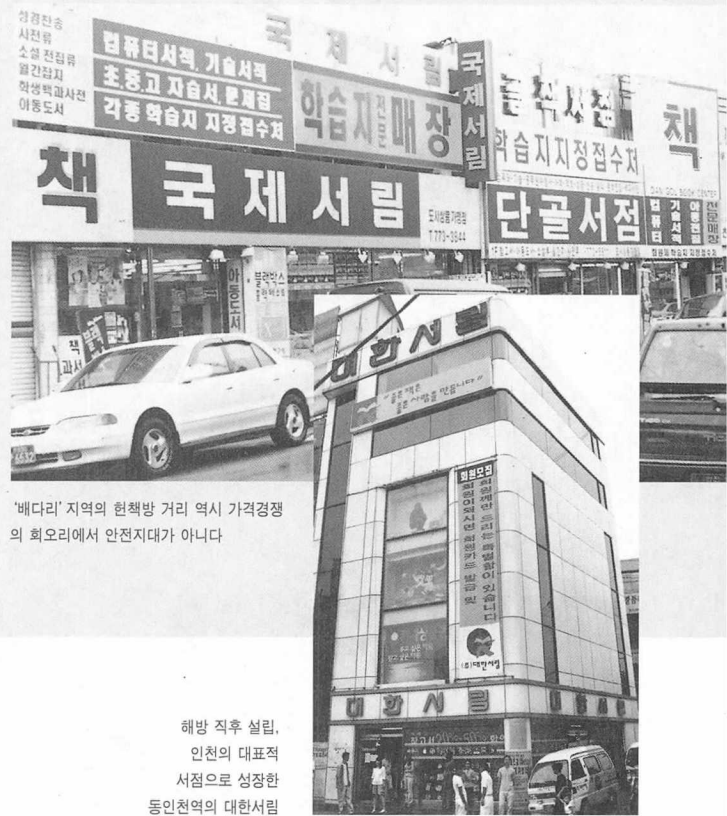
대한서림 김순배 대표는 "고객의 욕구를 채워줄 마케팅을 개발하고 자체 운영시스템의 과학화로 맞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른 1호선권 서점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개발하기 위해 바쁘다.

그러나 운영시스템 혁신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직거래의 비율이 높은 것이 큰 부담이다. 부평의 한 소형서점 대표는 "몇몇 대형출판사가 힘의 논리를 내세워 내리누른다. 정가제도 그래서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들의 횡포가 지방 서점을 죽이고 있다"고 분개했다.

대다수 지방 서점인의 바람 가운데 하나는 유통회사의 통합이다. 난립한 유통회사를 통합 또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지금처럼 출판사와 유통회사, 총판, 그리고 소위 나까마(도도매상)의 중복된 유통체계가 지속되면 지방 서점은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파괴의 근원지로 지목된 1호선권 유통시장의 경쟁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고사직전의 지방서점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대안을 마련할 때다. 이들이 곧 출판시장의 모세혈관이기 때문이다.

— 오완진 기자



'배다리' 지역의 현책방 거리 역시 가격경쟁의 최우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방 직후 설립, 인천의 대표적 서점으로 성장한 동인천역의 대한서림